

'이준석 돌풍' 그 끝은 어디일까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밭이 세 개 달린 숲 안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 있지만 숲무경 위에는 무거운 돌이 얹혀 있다. 젊은 쥐들은 이걸 먹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늙은 쥐에게 묻는다. 그동안 늙은 쥐였다고 팔시를 받던 늙은 쥐는 젊은 쥐들의 간절한 요청에 방법을 알려준다. "숲의 밭 하나가 있는 땅을 파 내려가거라. 숲은 자연히 그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러면 숲무경도 저절로 벗겨질 것이다."

조선 시대 고상안(高尚顔)이 쓴 '효빈잡기(效頻雜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노인들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고사성어 노마지지(老馬之智)도 마찬가지다. 춘추시대 재상(宰相) 관중(管仲)이 전쟁터에서 길을 잃었더니 늙은 말 한 마리를 쫓아 뒤를 따라갔으므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역시 노인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젊은이는 늘 젊고 싶어 버릇없는 것으로 치부돼 왔다.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젊은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요즘 말세(末世)

야. 말세."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의 유적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고전 일리아스에도 "예전 장수들은 혼자서도 돌을 들어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돌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한비자(韓非子)' 역시 이런 글을 남기고 있다. "지금 젊은 애들은 부모가 화를 내도 고치지 않는다."

이처럼 '젊은이들에 대한 한탄'은 특별히 요즘 시대 들어 생겨난 게 아니다. 갑자기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심한 젊은이'들이 늘어났을 리 없다. 젊은이를 바라보는 노인들의 시각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랬다. 어쩌면 세대 갈등은 인류의 숙명인지도 모를 일이다.

'탄핵의 강' 단숨에 건너다

파기의 젊은이는 때로 만능을 부리기도 하지만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것이 늙은이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파심(老婆心)'이라고 했겠는가.

한때 그런 노파심을 일거에 지워 버린 일대 혁명기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제1야당의 새로운 당 대표로 30대 젊은이 이준석이 자신보다 스무살 이상 많은 나경원·주호영 후보 등을 따돌리고 선출된 것이다. 참으로 '유쾌한 반란'이었다. 이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한 건 2011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서다. 하지만 2016년 탄핵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 내더니 결국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새로 만든 바른정당에 몸을 담았다.

이 대표는 20대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서울 노원 지역에 출마했으나 세 번 모두 낙선했다. 그에게 '마이너스 3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 돌풍'은 '아름다운 양보' 하나만으로 반짝했던 '안철수 신드롬'과는 다소 결이 다른 듯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수없이 낙선하면서도 끝없이 도전했던 과거 '노무현 열풍' 과도 닮은 구석이 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과거 김영삼·김대중의 '40대 가수론'을 떠올리게도 한다.

'이준석 돌풍'은 이례적으로 '전당대회 흥행'을 이끌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청산유수 같은 '말발'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된다." 이 대표의 경험 부족을 꼬집는 주호영 후보의 말에 그는 "말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곧바로 받아쳤다. 당선이 쉬운 대구 지역구에서만 5선을 한 주 후보를 향해 멋지게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이번 당 대표는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한다"라고 나경원 후보가 말했다 때도 '사실 제가 올 초에 주문 넣은 차는

전기차'라며 맞받았다. 그것은 '낙담(화물차)'과 '새로움(전기차)'의 상반된 이미지 대비를 통한 멋진 반격이었다. 계속되는 그의 거침없는 화법에 국민은 탄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그가 당 대표를 거머쥔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말발'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승리 요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바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탄핵이 옳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힌 것이 그것이다. 다소 무모할 수도 있는 승부수였다. 대구 지역은 국민의힘 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도 알 수 없게 돼

더군다나 그는 박근혜에 의해 발탁된 '박근혜 카드' 아니었던가. 자칫하면 '배신의 아이콘'으로 몰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경법이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아직도 박근혜에 목을 매고 있는 일부 '꼴통 세력'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언젠가는 넘어야 할 '탄핵의 강'을 단숨에 건너 버렸다.

고작 서른여섯 살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한편으로 정치 입문 10년이나 되어 가는 중진이기도 하다. 그가 이번엔 기존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타파하면서 탄핵의 강을 단숨에 건너 버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일거에 '끈대 정당'

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젊은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유신독재와 5·18 학살 등의 원죄를 안고 있는 제1야당을 결코 지지할 수 없었던 호남 지역 표심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힘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질 경우 호남의 민심은 서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만 되면 드디어 호남에서도 여야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집권여당에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다. 특히 '30년 집권의 꿈'(이해찬의 말)은 커녕 당장 내년 대선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도 어떤 식으로든 크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가 종식되었듯이 우리 정치권도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야권 통합과 정권교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이 대표는 나이 제한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 벌써부터 '나비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젊은 박윤진(50·전북 장수 출신) 의원이 요즘 갑자기 뜨고 있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작은 예일 뿐이다. 어쩌면 이준석 돌풍은 근본적으로 낡고 구태의연한 한국 정치를 확 바꾸려는 온 국민의 요구일 것이다.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3명 코로나 확진

임시 진료소 설치...전남, 순천·광양·목포 등서 감염 이어져

광주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주 상인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에 들어갔다. 전남에선 순천·광양·목포 등 도시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3명(누적 287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 중 2명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서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의 가족과 지인이다. 나머지 1명은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시장 전역을 방역 소독하고 시장 내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인 등 9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아직 추가로 상인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순천, 목포, 광양 등 도시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자정까지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 3명, 목포 3명, 광양 2명이다. 순천 3명은 기확진된 영여학원 강사 수강생 2명(교과생) 등이다. 목포 확진자 3명 중에선 광양지역 커뮤니티센터와 전남과학교대(곡성)에서 강의하는 전남 1562번 확진자를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16일 오전 검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전남 1562

번의 지인이 확진(1565번)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순천에서 나온 전남 1566번의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전국에서는 16일 0시 기준, 5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14만9191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522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16일 현재까지 오접종 사례가 4건 발생했다. 위탁의료기관(병·의원)에서 신고된 백신 오접종 사례는 대상자 오류 1건, 접종 시기 오류 1건, 접종 용량 오류 2건이다. 이는 전국 발생 115건의 3.48% 수준이다.

접종 용량 오류는 인지장애로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남성에게 중복접종을 한 사례, 1차 접종 시 0.5ml를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ml 접종한 사례이다. AZ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안센을 접종한 사례도 있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오접종 사례를 관찰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

개정안 복지위 통과...“비용지원, 재정당국 의견 수렴 진행”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 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투자 하실분 3억이상

경기/수도권 물건
급매물/경매 특수물건
투자금 법적으로 보장
월2부 이상 수익 가능

20년노하우. 010-3605-5000

부동산 직거래 [토지·건물·임야] 매매·임대

-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트리나무 15년생 105주외 7중(소나무, 백일홍, 목련, 뽕나무, 향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자, 조경수 포함 ㎡ 8만원
-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점포8칸,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집중개발 투자 최상 매9억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 1층 점포6칸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카로수길 70m점 계획관리지역 전·담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점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 18만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중)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개발,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상 근접, 교통이 편리, 4,220㎡(1,276평) 매㎡ 7십만 ※ 분할매매가
-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화송리, 계획관리지역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요,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이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매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화) 지식강 바라봄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개발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 4만원 (매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지직성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매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점 62,740㎡ 휴양림 적층 다수 자생 생약재배, 캠프장, 농가주택가 ㎡5천원 (매매)
- 건축물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타(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면 7층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설·참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동시장 내 점포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상, 먹거리, 건물용 기타 다목적 사용자,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

※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서병재(520705-XXXXXX)
· 최후주수: 전남 영광군 발성면 전곡리길 48 나동 107호 (오성연)

피상속인 양 서병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2021년 단498호로 신청하여 2021년 6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주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17일

· 상속인: 1. 서진희(779030-XXXXXX) 2. 서진희(9090406-XXXXXX) 부산 동래구 아사드대로146번길 1 107동 1405호(사적증, 사적및가계승달래대시) 3. 서하영(820711-XXXXXX) 제주시 우정로18길 25, 103동 404호 (외도입용, 아용마을) 4. 서창희(840816-XXXXXX) 상곡인 1, 4의 주수: 제주시 연천로3길 26, 107동 210호 (연남동, 현아마을)

· 신고기간: 2021. 6. 17. ~ 2021. 8. 26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4. 서창희의 주소

산행안내

6월27일(일)
▲ 광주K산악회 6월27일(일) 경남 밀양, 구만산785m&구만폭포, 가인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누 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오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율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